

지리산엔 '신서유기8' 발자취 속속



가을의 높고 공활한 하늘을 더 가까이 만끽하고 싶다면? 지리산이 '답'이다. 꼭 산등성이를 타면서 땀을 흘리지 않아도 좋다. tvN 예능프로그램 '신서유기8' 멤버들을 따라가면, 맛과 풍경에 재미까지 모두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9일 시작하는 '신서유기8'은 첫 방송의 무대를 지리산 자락으로 삼았다. 개그맨 강호동, 이수근, 가수 은지원, 규현, 송민호, 피오 등 6명의 멤버가 지난달 미리 지리산을 찾아 각종 게임을 벌였다. 이들은 촬영 당시 유튜브 계정 '채널 심오야'에서 웃긴 분장을 한 채 식당들을 방문해 '떡방'을 선보이기도 했다. 시리즈 예시청자 사이에서는 촬영 장소들이 '지리산 투어' 목록으로 묶여 공유되고 있다.

이중 한복을 입은 강호동이 방문한 중국집, 게임 속 새 캐릭터로 변신한 은지원이 '마카롱 떡방'을 펼친 카페 등이 특히 인기다. 두 가게 모두 경남 하동군에 위치해 '지리산 맛집'으로 이미 유명하다. 카페는 동정호와 인접해 풍광을 즐기기도 안성맞춤이다. 유지혜 기자

연예뉴스 HOT 3

YG "블랙핑크 뮤비 복장 논란 편집 논의"

'성적 대상화' 논란을 빚은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속 간혹 복장에 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특정한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왜곡된 시선이 쏟아지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날 블랙핑크의 신곡 '러브식 걸즈'와 관련한 논란은 멤버 제니가 헤어 췌과 몸에 붙는 흰 치마, 빨간색 하이힐 차림으로 등장하면서 불거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논평을 내고 "간호사의 직업적 이미지를 왜곡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YG는 "각 장면은 음악을 표현한 것 이상 어떤 의도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작진은 해당 장면의 편집과 관련해 깊이 고민하고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난 동성애자" 트로트가수 권도운 커밍아웃



트로트가수 권도운(30)이 6일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2000년 방송인 홍석천이 연예인 최초로 커밍아웃을 한지 20년 만에 처음이다. 권도운은 이날 소속사 믿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트로트 가수 최초로 커밍아웃한다"며 "성 소수자의 인권을 대변하고 연예계 커밍아웃의 지평을 열어 가고 싶었다. 성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후 권도운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기사를 공유하며 "아침부터 기사가 쏟아져 짹짹 놀랐다"며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썼다. 권도운은 2009년 제2회 TBS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에서 대상을 타며 데뷔했다.

비·김태희 부부 "사생활 침해 멈춰주세요"

가수 비·김태희 부부가 사생활 침해를 호소했다. 비의 소속사 아티스트 에이전시는 6일 공식 SNS를 통해 "최근 비의 집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낯선 이가 두 사람의 집 앞을 서성이고 있다. 소속사 측은 "이런 행동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고 부탁한다고 하면서도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마지막 경고"라고 밝히면서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들이 반복될 경우,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11월 개봉하는 영화 '도굴' 주연으로 나선 이·제·훈

"너무나 단 흠맛? 사실은 아이스크림 알갱이"



"흠맛으로 유물 찾는 도굴꾼 촬영 내내 흠범범 댄도 신나 내 모든걸 쏟아낸 작품이죠"

"백과사전!"

11월 개봉하는 영화 '도굴'(감독 박정배·제작 싸이런픽처스)의 스태프가 입을 모아 주연 이제훈을 가리킨 말이다. 아마도 현장에서 그만큼 다채로운 연기를 펼쳐냈다는 의미일 터, 이제훈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냈다"고 자부했다.

이제훈의 전작은 '사냥의 시간'. 올해 4월 극장 개봉을 추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정을 미룬 끝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OTT)인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공개하면서 갖은 논란을 모았다. 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 역시 크게 엇갈려 성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이 같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새롭게 나선 무대가 '도굴'이니, 어쩌면 이제훈은 "모든 것을 쏟아"낸 무대로서 이번 작품을 회심작이라 여길 만하다.

개봉에 앞서 6일 온라인 제작발표회를 통해 취재진을 만난 이제훈은 "그 동안 보여드리지 않았던 제 매력을 총 집합시켜 발산했다"고 자신했다. 현장 스태프가 '백과사전'이라는 별칭을 붙여준 데 대해서도 "처음으로 능글맞고 능청스러운 캐릭터를 연기하며 천연덕스럽게 놀 수 있었"던 덕분이 라고 말했다. 현실의 자신은 결코 능글맞거나 능청스럽지 않으니, "천연

덕스"러운 연기가 가능했다는 설명이 기도 하다.

그는 이처럼 새롭게 나서는 '도굴'에서 '흠맛'만 봐도 땅 속 유물을 찾아내는 천재 도굴꾼 역을 연기했다. 고분벽화 도굴꾼, 고미술 큐레이터 등 이른바 '전문가'들과 함께 한판 도박과도 같은 판을 벌이며 펼쳐는 이야기를 이끌었다. 조우진, 신혜선, 임원희 등이 그와 함께했다.

이제훈은 실제로도 '흠맛'을 봤다. 도굴꾼 역할인만큼 땅을 파헤쳐 유물을 훔쳐내기 위해서는 흠을 손과 입에 문힐 수밖에 없었다. 때로는 자신의 치아 건강을 우려한 소품팀이 막대 아이스크림의 걸 알갱이를 넣어 만든 것으로 대신하기도 했다. 이제훈은 "너무나 단 흠맛을 봤다"며 고마움을 전하고 "능글맞고 능청스러운 캐릭터"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웃었다.

이제껏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의 이야기를 펼쳐내는 사이, 만족감은 그렇게 찾아왔나보다. 스스로 흐뭇해하는 회심작으로 이제훈은 그 같은 공감을 관객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고대했다.

"촬영 과정이 너무나 좋았다. 현장에 가는 게 지금까지 작업해온 영화 가운데 가장 신났다. 이 신나고 즐거운 기분을 빨리 관객에게 전해주고 싶게 됐구나 싶다."

한바탕 판을 벌이는 범죠히락영화로서 '도굴'을 무대 삼아 이제훈은 한 판 제대로 "놀 수 있었던" 발달함을 표정으로 고스란히 드러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기자 이제훈이 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영화 '도굴'의 제작보고회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그는 극 중 땅 속 유물을 파헤쳐 훔치는 천재 도굴꾼 강동구를 연기한다. 사진제공 | CJ엔터테인먼트

'여의도발' BTS 병역특례... "60조 경제효과" vs "형평성 논란"

노웅래 위원 "한류=미래전략산업" 전용기 의원 "기준 세우고 논의해야"

그들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특례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맞부딪치면서 정치권발 논란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5일에 이어 6일에도 방탄소년단처럼 국외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를 통해 "한류의 대표가 방탄소년단이고, 한류는 미래전략산업의 대표이다"면서 "다른 분야는 병역특례가 되는데 대중문화 분야만 안 된다고 하면 제도의 취지와도 안 맞는다고 본다"고 강조

했다. 그는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년 전인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축구 대표팀 손흥민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한 사례와 비교했다. 그는 "손흥민은 되는데 왜 방탄소년단은 안 되냐"며 "밥 딜런은 노벨문학상도 받는데 왜 우리는 만따라로만 보느냐. 장르가 구분이 안 되는 퓨전의 시대에 대중음악을 너무 폄하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이 만 30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전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체육처럼 국제 대회가 명확하지 않아 모호한 면이 있다"며 "방탄소년단은 국위선양을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을 명확히 세운 다음 면제나 특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은 올림픽 3위 이상 및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 쿠투르 2위 이상 입상자 등에만 병역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규정은 없다.

24살로 더불어민주당 역대 최연소 최고위원인 박성민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정치권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면서 "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쉽게 결론이 날 문제도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내에서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제공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논의가 정치권 마음대로 번져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 본인들이 굳이 원하지 않는데 정치권에서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조심스러운 생각"라며 말했다. 이어 "만



방탄소년단

약 방탄소년단이 군대에 간다면 거기서도 활동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인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정치권이 아닌 문화예술계가 본인들 차원에서 정리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이 실제 병역법 개정 등 입법화와 제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청년세대의 형평성과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공정성' 문제와도 맞물리기 때문이다. 5일 김중철 정의당 대표 후보자는 "다른 청년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도도솔솔...' 고아라, 17년 만에 로코퀸 도전

데뷔 2년차 신인 이재욱과 호흡 7일 첫방송... '인생 캐릭터' 각오

연기자 고아라가 데뷔 17년 만에 '로코퀸'에 도전한다. 7일 첫 방송하는 KBS 2TV '도도솔솔라라솔'로 로맨틱코미디 드라마 주연을 처음 맡으면서다. 톡톡 튀는 발랄함을 앞세워 2013년 tvN '응답하라 1994' 속 성나정에 이은 또 다른 '인생 캐릭터'를 만들겠다는 각오도 함께 내비친다. 고아라는 극 중 작은 시골마을인 은포에

피아노학원 '라라랜드'를 개업하는 피아니스트 구라라를 연기한다. 갑자기 빈털터리가 돼 피아노를 '생업' 삼아 고군분투하는 캐릭터다. 상대역인 이재욱에게 돈을 빌려채우 관계로 얽혔다가 로맨스로 발전하게 독특하다.

그는 나이에 비해 긴 연기 경력에도 불구하고 로맨틱 코미디 장르와 인연이 없었다. 앞서 '응답하라 1994'에서 연기자 정우와 연인 연기를 펼치긴 했지만, 로맨스가 중심인 드라마는 이번이 처음이다.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도도솔솔라라솔' 고아라

말한 만큼, 고아라도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다. 데뷔 2년 차인 신인 이재욱과의 로맨스 호흡도 적극적으로 이끌고, 피아노 연기를 직접 소화하기 위해 오랜 시간 투자

했다. 이날 첫 방송을 앞두고 오후 2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드라마를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소화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그간 고아라가 쌓아온 '자기주도형' 여성 캐릭터는 그대로 이어간다. 고아라는 앞서 SBS '해치', JTBC '미스 함무라비', KBS 2TV '화랑' 등을 통해 운명을 개척해가는 인물을 연기해왔다. 이번에도 무일푼으로 도착한 은포를 삶의 새 터전으로 바꾸면서 깨끗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발휘한다. 대본을 집필한 오지영 작가는 제작진을 통해 "화사한 웃음과 귀여움 모두 고아라와 딱 잘 맞아 떨어진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